



5·18기념재단이 이날 말부터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 조사에 들어간다. 5·18 당시 공수부대원이 약도를 그려 매장지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첫번째 발굴조사 대상이 된 광주교도소 외곽 지역.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재단, 암매장 발굴 조사 이달말 착수

3공수 작성 메모에 위치 표시된 옛 광주교도소 인근부터

7공수 주둔 너릿재 인근·제2수원지도 순차적 조사키로

최근 자체 진상규명 위원회를 꾸린 5·18 기념재단이 올해 말로 계획하고 있던 5·18 당시 행방불명자 암매장지 발굴조사를 앞당겨 이르면 이달 말 추진할 예정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신빙성 있는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발굴조사에 들어가 진상규명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8일 5·18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옛 광주교도소 외곽지역, 너릿재 인근, 제2수원지 인근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지난주 검찰에 이어 이날 광주시에 토지 소유자 확인 등을 협조 요청했다.

재단이 옛 광주교도소 외곽 지역을 첫번째 발굴조사 장소로 지목한 까닭은 최근 찾아낸 문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

단은 이 문서가 16절지(19.7cm x 27.2cm) 크기로, 5·18 당시 광주 교도소에 주둔하던 3공수여단 부대원이 작성한 메모라고 설명했다. 문서에는 암매장 위치가 표시된 약도가 담겨 있으며, 재단은 작성자가 실제 암매장에 참여했는지 목격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후 발굴조사 일정이 확정되면 메모와 작성자 이름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5·18 당시 군 발표에 의하면 광주 교도소에서는 27명의 시민들이 사살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신 11구만 확인돼 교도소 주변에 16명이 암매장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번째 조사 장소로 지목된 너릿재 인근은 유력한 암매장 추정 지역으로 꼽혔던 곳으로, 5·18 당시 7공수여단의 주둔지다.

재단에는 최근 ‘5·18 직후 대낮에 군인들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사용해 마대자루를 묻고 있었으며 자루 밖으로 나와있는 시신의 머리를 봤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제보는 있었지만 목격 시점이 대낮이라는 점이 이유로 조사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재단은 다수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을 제보함에 따라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마지막 제2수원지도 7공수여단이 주둔하던 곳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풀과 나무가 우거진 곳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조사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암매장지 관련 제보 67건을 접수한 광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 2009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는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광산구 소촌동 공동묘지·삼도동, 광주통합병원 담장 밑, 황룡강 제방, 상록회관 옆 도로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행불자 시신은 찾지 못했다.

2차 발굴(2006년 2월~2007년 12월, 문화예술회관 관리동 뒤면 화단·북구 장동동 야산), 3차 발굴(2008년 8월~2009년 4월, 남구 주월동 아파트 건설현장·북구 효령동산)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된 행불자는 75명이지만 5월 단체들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쳐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5·18재단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분위기에 휩쓸려 발굴조사를 서두른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가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력한 자료를 찾았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자고 판단했다”며 “진상규명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첫번째 발굴조사의 성공이 중요한 만큼 세밀한 검증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무장병원 운영하며 16억 가로챈 삼형제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적발 가짜 환자 284명도 입건 전남경찰, 지속 단속 방침

‘사무장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16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형제들과 가짜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특경법상 사기)로 사무장 정모(34)씨와 한의사 이모(42·대만 국적)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의 친형들이자 전·현직 원무부장 2명, 한의사 김모(48)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환자 284명도 형사 입건했다.

정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광주시 광산구에서 모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13억원과 민영보험금 등 16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병원 측과 짜고 가짜환자 명의로 입원하거나 입원·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사 33곳으로부

터 각각 30만~1000만원씩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운영난을 겪고 있는 한방병원을 인수한 뒤 기존 원장인 김모씨를 고용했으나 김씨가 그만두자 상소를 바꿔 한의사 이씨를 고용하고 형제들을 원무부장으로 앉혀 직접 운영했다.

이들 3형제는 가족 중에 보험설계사 출신이 있어 보험 관련 지식이 많았고 보험 범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질환을 앓거나 특별한 증세가 없는 가정 주부들을 상대로 2주 안팎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려 요양급여 등을 빼돌리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또 입원 환자의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고가의 한방약제나 피부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환자들의 허위·과다 입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노령 인구가 많은 광주·전남에 전국 한방병원의 30% 이상이 밀집해 있어 의료보험 수가 과다 청구, 불법 환자유치, 보험사기 등 범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족제비 때문에...소방차 8대 출동 소동

배전함 연기 신고에 가 보니 쥐 사냥하다 감전사 한 듯

족제비 1마리 때문에 소방차 8대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18일 광주동부경찰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35분께 광주시 동구 황금동 옛 무등극장 인근 배전함(가로 1.2m×세로 1m×높이 1.2m)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해당 배전함은 인근 건물들에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다.

119는 화재진압 차량 8대를 출동시키고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한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하지만, 불꽃이 보이지 않고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심

하게 풍기자 소방대원들은 한국전력에 연락해 배전함 뚜껑을 열었다.

배전함에서 나온 족제비(길이 40cm) 한 마리와 쥐 한 마리 사체였다. 소방대원들과 한전 직원들은 쥐를 따라 배전함에 들어간 족제비가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배전함은 길가에서는 동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뒤면에 지름 10cm 크기 구멍이 뚫려 있다”며 “다행히 합선으로 인한 정전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시 “암매장지 발굴 적극 지원·참여”

시의회도 전면 재조사 촉구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5·18 암매장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조사와 관련한 광주시 입장’을 통해 “5·18기념재단이 암매장지 발굴을 다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5·18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광주시가 지원하고 참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행불자 암매장지 발굴과 국방부의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은 모두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데 앞장서 민주와 평화의 시대를 열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길에 150만 광주시민이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이날 결의안을 통해 “그동안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실종자 규모와 신원을 정확히 재조사해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에 행방불명자·집단체장지 발굴을 포함할 것도 요구했다.

김보현 위원장은 “정부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5·18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규명되도록 암매장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

트럭·버스 충돌 1명 사망

18일 오전 11시10분께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t트럭과 군내버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고모(45)씨가 숨지고 군내버스에 타고 있던 버스운전사와 승객 4명이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트럭과 버스 중 1대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빈집서 개 사료 풀이고 잔불 정리 제대로 안해 ‘화르륵’



빈집서 자신의 개를 키우고 개밥까지 풀이 먹고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고모(45)씨가 숨지고 군내버스에 타고 있던 버스운전사와 승객 4명이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제로 불씨가 옮겨 불어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는 것.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서씨는 광산구에 있는 165㎡(50평) 규모의 빈집을 하루 한차례씩 찾아와 개밥을 풀이하고 마당 한쪽에서 폐자재와 쓰레기 등을 소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서모(70)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소재 빈집에서 개 사료를 풀이하고 난 뒤 잔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귀가하는 바람에 근처 폐자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부안 숙박시설(모텔) 매매·임대

2개동 (룸 총 46개) 즉시영업가능

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감정가 16억

매매가 9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

직접 운영시 월 수익 2,000만원 가능

직매 010-7384-7800

영광주택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개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

010-6670-9800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노후대비 최적합

- 1) 상무지구 치평동 상가 1층
감정가 16억 - 최저가 5억7천
- 2) 동구 금남로 충창로 코너(15층 상가건물)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75억(특A급)
- 3) 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광주대 3분거리, 월수익 5백 이상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4) 남구 진월동 (5층 상가건물)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
- 5) 북구 신안동 (무인텔)
감정가 51억 - 최저가 36억
- 6)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 - 최저가 17억
- 7) 북구 중흥동 (3층 상가건물)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9억6천

특수물건, 절반물건, 상가.토지, NPL전문

경매교육

매주월요일 개강 → 기초부터 실전까지
프리직원(파트너) 모집
062-382-5500